

BEST 私教育 현장 ①

진우학원 원장 이종진

7단계 반복 완전학습 시스템 구축 실력향상

수강료 현실화하여 불법 고액 과외 근절해야

본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뀔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교육기관 가운데 포천시학원연합회가 우수 학원으로 선정한 학원을 소개하여 우리사회의 기록으로 삼고자 한다.

(편집자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 개념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고 확장시켜 주는 것이다.”

진우학원(원장 이종진·사진)은 7단계 반복 완전학습(RFS) 시스템으로 초등부와 중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국어, 사회 과학, 영어 등의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7단계 반복 완전학습의 제1단계는 교재를 통한 학원에서의 직접 대면수업(학원수업), 제2단계 동영상 강의 및 미션으로 확인 학습(통합복습), 3단계 익일 수업 전 5분 이내 쪽지시험을 통한 확인 수업(확인수업), 제4단계 주간 과제물을 통한 반복 확인 학습

(과제물 학습), 제5단계 주간단위 평가를 통한 심화 확인학습(주간 평가), 제6단계 월간평가를 통한 반복 확인 학습(반복학습), 제7단계 중간/기말고사 대비 학원에서 반복 확인학습(시험대비학습)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영어과목의 경우 3F 학습법으로 실력이 속속 올라가고 있다.

3F는 Fun+Frequency+Fluency로 Grammar1은 초등과정의 기초문법 사항과 중학 과정의 필수 기본 사항을 상세히 정리하고 문제를 통해 확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Reading2는 문법과 연계된 지문을 통해 단문의 내용과 흐름을 파악하는 독해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고 Word Clip3는 한 주의 어휘를 중요도 중심으로 정리하여 학습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중학과정의 어휘를 선형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Listen&Talk4는 주요 의사소통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표현을 익히고 연습 문제를 통해 듣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Weekly Test 5는 의사소통 문법 특혜의 전체 학습 내용을 문제를 통해 확인 학습 할 수 있도록 했다.

논술과목은 초등논술의 경우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도서를 읽고 지식, 정보 활용능력을 높이는 활동을 통해 학습능력을 극대화



하는 통합교과 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등논술의 경우는 논리성과 창의성,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여러 가지 견해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세상을 바로 보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

컴퓨터 과목의 경우는 기초과정과 웹디자인 과정, 자격증 과정, 취업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우수한 원생을 육성하고 있는 진우학원 이종진 원장은 평소 학원운영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바른 교육의 소명감으로 후진 양성과 평생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교육인

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원장은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지역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도 눈을 돌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선행활동은 물론 결사야동 돕기에 적극 나서는 등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유기고

‘선사시대 사람이 되어 보다’ 토요휴업일에 가본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공부는 역시 책에서 읽는 것보다 살아있는 현장에서 느끼고 만져보며 경험 해 보는 것이 더 쉽게 더 많은 것을 알게 해 주는 것 같다.

며칠 전부터 이번 토요 휴업일에는 광릉내 수목원에 가 보자.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말과 휴일에는 개장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할 수 없이 방학 때 가 보려고 하고 이번에는 지난 해 봄에 한번 다녀왔던 연천군 전곡리의 선사 유적지에 다시 한 번 가 보려고 했다.

그 곳은 포천시청에서 자동차로 약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다.

지난해에는 유적지 입구에 들어서면 예쁜 꽃잔디가 동산 가득 피어 있어서 좋았는데 올해는 그곳에 있던 꽃잔디는 한 송이도 볼 수 없어서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지난 해 보다 더 많아진 구석기 시대 인형들이 반겨 줘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

하려고 노력하는 선사체험 마을이 감사했다.

전곡리 선사 유적지는 문화유산으로 사적 268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곳에 가면 선사시대 사람들이 물고거나 야생 동물 사냥하는 모습, 움집 등을 볼 수 있고 선사 유적관은 전곡리 선사 유적지의 중요성과 전 세계의 구석기 유물, 인류의 진화 과정 및 발굴 과정을 전시되어 있었고, 토층 전시관에서는 유적지 발굴현장을 재현한 모습과 영상물로 연천의 유적과 주먹도끼라는 선사시대 이야기를 볼 수 있었다.

함께 간 친구와 가족이 되어 관리사무실에 가서 일반 원을 내고 오늘은 내가 고고학자라는 체험을 신청했다.

한탄강에서 주먹도끼를 맨 처음 발견한 미군 병사와 같은 마음으로 풀밭에서 또는 흙 속에서 돌을 찾아내 살펴보고, 흙을 살살 긁어내며 유물을 찾았다.

그러다가 유물인 듯한 돌을 찾아내어 소리치면, 인술 해 주시



이지연 학생기자·포천초 5년

는 선생님은 어느새 달려와 내가 찾아낸 유물에 대하여 즐거운 모습으로 자세히 설명 해 주셨다.

이 밖에도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체험놀이를 할 수 있다.

돌도끼로 감자나 당근을 캐 보기도 하고 움집 짓기, 토기 빚기 그리고 화석 찍기도 해 볼 수 있다.

오늘 선사시대 유적지에는 토요 휴업 일을 맞아 인천이나 부천 등 각지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견학을 많이 왔다.

돌도끼로 감자나 당근을 캐 보기도 하고 움집 짓기, 토기 빚기 그리고 화석 찍기도 해 볼 수 있다. 오늘 선사시대 유적지에는 토요 휴업 일을 맞아 인천이나 부천 등 각지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견학을 많이 왔다.

공공의 에티켓

육학년이 되어서 이것저것 해야 할 공부들이 참으로 많이 생겼다. 어른들이 많이들 바쁘다고 하시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바쁜 하루 일과를 치러야만 한다.

공부는 때가 있는 것이니 그때를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소리를 부모님을 통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하려면 초등 마지막 단계를 차곡차곡 쌓아 두어야만 한다.

기본적인 과목과 예체능, 한자, 영어 중에 어느 과목하나 소홀히 해서도 안되는 과목들이다. 부족한 과목을 보충해야 하므로 토요수업이 끝난 후에 도서실로 향했다.

입구의 벽면에는 제25호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새겨져 있고, 하단에서 ‘포천시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라고 분명히 또박또박 한글로 새겨져 있으니 출입하는 사람들 모두가 한번씩은 읽어 보았으리라 생각한다.

도서실 내에서 공부도 하고, 함들면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어 좋았고, 조용해서 좋았고, 도서관이 접 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

하지만 농촌의 아름다운 유년 시절을 많이 읽고 싶었는데 부족한 도서도 많았다.

김유정의 ‘동백꽃’이나 나도 향의 ‘봄봄’ 같은 예쁜 내용의 소설을 보지 않아 검색 p.c로 도서를 검색해보니 없다고 나왔다.

포천시에서 추천한 모범 도서 관리라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서 관리대 기본책도 도서가 없으니 충격이기도 했다.

물론 개개인이 원하는 책이 다 준비되기란 힘들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갖추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날은 웬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도서실에서 벌어졌다. 몇몇 사서들과 관계자들이 불친절하게 대하고 어리다고 무시하고 알보는 것 같아 불쾌하기도 했다.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좌석 예약하는 과정에서 말이다.

한참동안 공부에 열중하다가 잠깐 손을 얹고 싶을 때 바라 볼 수 있는 곳이 테라스이다.

나뭇잎이 아니고 민간의 시선 또한 모아 질 수 있는 곳이고 한 데 이 소중한 장소에는 담배꽂이가 있고, 배설 또한 자유하고 도서실 내에서는 문자 보내는 소음이 끊이지 않았다.

공부하는 도서실이 보통 열람실보다 소란스럽고 이용안내 또한 알려주지 않아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야 했고, 모르는 사람이 무턱대고 남의 자리에 앉



조은혜 학생기자·부단장·포천초 6년

아서 공부하다 일어나야 하는 불쾌감과 창피함이 연장되기도 했다.

담배 피우고 공초 버리고 문자 보내는 어른들의 자녀들이 도서실을 출입한다면 어떨까요?

현관 벽면에 새겨진 문구는 읽어보기는 한 것일까? 아름다운 건축물을 무색하게 하는 어른들이 도서실을 쓰레기더미로 만들고 있으니 쓰레기 분리하고 공공장소 이용하는 예의부터 다시 배우고 오면 어떨까?

아름다운 건축물을 무색하게 하는 어른들이 도서실을 쓰레기더미로 만들고 있으니 쓰레기 분리하고 공공장소 이용하는 예의부터 다시 배우고 오면 어떨까?

아름다운 건축물을 무색하게 하는 어른들이 도서실을 쓰레기더미로 만들고 있으니 쓰레기 분리하고 공공장소 이용하는 예의부터 다시 배우고 오면 어떨까?

교사와 학생이 함께 금연식

경북중학교 금연성공 위해 최대한 지원키로

경북중학교(교장 심동섭)는 4월 11일 오후3시30분 과학실에서 교사 및 학생 14명이 금연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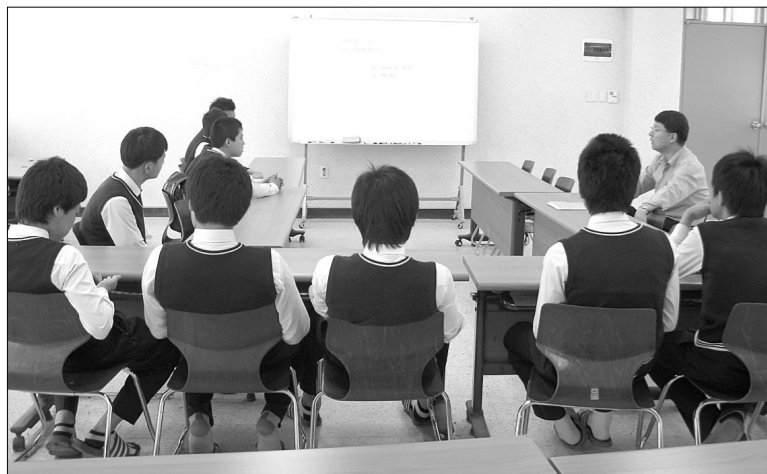
이날 금연식은 경북중학교에서 흡연증이 교사 2명과 학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에 관한 동영상 시청하고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자른 후 금연서약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지도를 하던 교사 2명이 먼저 금연을 실천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결심으로 마련됐다.

교사는 흡연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금연을 종용하는 비교육적인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던 학생부장(최석규, 38)의 권유에 다른 교사가 동참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금연에 도전하게 됐다.

이번 금연식 행사에 대해 경북중학교 심동섭 교장은 “앞으로 교사나 학생들이 금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북중학교는 4월11일 오후3시30분 과학실에서 교사 및 학생 14명이 금연식을 가졌다.

함께 공부해요

위의지칙(威儀之則) ⑤3

公子는 食不語 하지며 寢不言 이려시다. 어(語) 남의 말에 대답하는 것. 언(言) 자신이 말하는 것.

공자는 밥 먹을 때에는 대답 하지 않으며 잠 잘 때에는 말 하지 않았다.

먹을 때는 먹고 잘 때에는 자야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에는 밥 먹을 때 말하는 것을 실례로 알고 이것을 경계했지만 지금은 떠들면서 먹는 것이 사회에 좋

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양주승 본지 지만원회 고문

그저 웃는다

멍하니 길거리를 걸다가 옛 사람을 우연히 만나면 그저 웃는다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웃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저 웃는다

볼이되면 피는 뱃속처럼 언제나 풀고 도는 마음의 짐을 벗으려 그저 웃는다

비오는 거리를 걸다 노란우산 유치원생의 웃는 모습을 보고 그저 웃는다

내 곁에서 함께 울고 웃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는 걸 보면서 그저 웃는다

세상을 향해 언제나 웃는다 어떤 싸움이든 웃는 자가 이기는 거니까...



이해영 학생기자단 부단장·후고 3년



윤동성의 국제비즈니스 미국영어



수업실

9. < 보 기 > : (2)

\* 08:00 : 1)에잇러클락

<Eight O'clock>

2)에잇한드렛 어워스

<Eight hundred hours>

3) 에잇 에이엠

<Eight a.m.>

\* 19:00 : 1) 세븐 피엠

<Seven p.m.>

2) 나인틴인 한드렛어워스

<Nineteen hundred hours>

\* 23:30 : 1) 튀니뜨루 퍼리

<Twenty three thirty>

2) 일레븐머리 옛나잇

<Eleven thirty at night>

\*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되었나?

왓스더스코어 나우?

<What's the score now?>

\* 1 대 1 동점 이야

데이아트, 원투원

<They're tied, one to one.>

문의: 윤 동 성 (017-723-4977)colyoon@nate.com



심리상담 ⑫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아이 자폐증인가요?

최근 자폐증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소개되면서 자폐증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부쩍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의 자폐증 아들이 보인 행동을 보고서 우리아이에게 그런 비슷한 행동이 나타나면 자폐증이 아닌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자폐증이란 진단은 특정한 행동 한 가지만으로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자폐증이라는 장애는 어느 특정시기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질병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폐증에 관한 연구를 보면 아이가 영아기에 눈웃음이나 친숙한 사람을 알아보고 미소 짓거나 목소리내기, 낮가림, 관심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리키기 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거나 정상발달의 나이보다 한참 지체나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를 물어올려 안으려 하고 하면 아이의 몸은 경직되어 깨닫기 힘들었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폐증이라는 진단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

람(DSM-IV)에 의하면 크게 3가지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첫째, ‘사회적 상호관계의 질적 손상’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눈맞춤, 얼굴표정, 비언어적 행동(gesture)에서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기가 어려운 것도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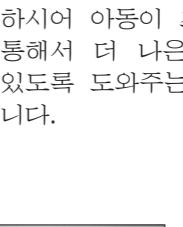
둘째, ‘의사소통의 질적 손상’입니다. 이것은 구어의 발달이 지연되어 있거나 완전한 결손, 또는 말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일정한 시간동안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 그리고 언어 또는 의사소통 언어를 상동증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제한적이고 반복적이며 상동증적인 행동, 관심, 활동’입니다. 이것은 물건의 정상적인 물두가 아닌 특정한 일부분에 몰두(예를 들어, 자동차의 바퀴나 모서리부분)하거나 똑같은 행동의 반복, 틀에 박힌 일이나 의식에 대해 집착하는 것(예를 들어, 집에서 슈퍼마켓을 갈 때에는 꼭 갔던 그 길로

만 다녀야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3가지의 특징을 적어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을 경우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특정 행동 한 가지만을 나타낼 때에는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행동에 자폐증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영아의 아동행동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고위 3가지 행동을 모두 나타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덧붙여 이러한 행동을 모두 보이는 아동이라면 가까운 소아정신과나 센터에 빨리 방문하시어 아동이 초기에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문의: 우리심리상담센터 031-541-0954



유정현 우리심리상담센터 책임연구원